

[국제]

美, 대북 대규모 식량 원조 추진

부시 강력한 의지...병원용 발전기 등도 지원

북핵 6자회담이 불능화와 전면신고를 목표로 한 2단계 이행에 돌입한 가운데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직접 제공과 병원용 발전기 등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미국 정부는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규모 식량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미국 기관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 식량 배포와 모니터링 업무를 맡겠다는 계획을 북한측에 통보했다고 워싱턴 소식통들이 7일(현지시간) 밝혔다.

한 소식통은 "대북 식량 지원은 조

지 부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한다"며 "미국은 이에 따라 대규모 식량 지원을, 북한에 사회간접자본 지원 등과는 별개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북미 양측 실무자들이 곧 식량 지원에 따른 북한 내 사무소 설치와 모니터링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과거에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왔으나 2005년 하반기 북한이 세계식량기구(WFP)의 철수를 요청하자 모니터링 문제를 들어 대북 식량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또 식량 지원과는 별도로 전력난을 겪고 있는 북한 내 병원들에 발전기 등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미 국제개발처(USAID)는 머시코, 유진벨 등 미국 내 4개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 각지의 병원들에 발전기를 제공하는 계획을 마련,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라이스 美 국무 방북 가능성 '주목'

7년전보다 우호적...북·미 정상 회동 여건도 좋아

남북정상회담의 열기가 다시 한번 미국 고위인사의 방북으로 연결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외교가의 반응은 "6자회담의 진전과 남북관계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쪽이다. 그리고 일단 미국 고위인사 가운데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주목되고 있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이 열린 뒤 4개월 가량 지난 10월9일 북한의 조영목 특사가 전격적으로 미국 방문 길에 올라 빌 클린턴 대통령을 면담하고 북·미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그러더니 열기를 몰아 10월23일부터 사흘간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미 국

무장관이 북한을 방문, 두차례에 걸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했다.

외교소식통들은 "7년전보다 더욱 여건이 우호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 말한 '남북한과 미국간 종전선언' 방안을 설명하자 김 위원장이 '동의'의사를 피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적인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8일 "미국의 대북 협상을 주도하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최근 행보를 분석해보면 라이스 장관의 방북도 얼마든지 성사될 수 있다"면서 "문제는 불능화 작업의 진척 정도이며 북한의 핵폐기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미국의 핵 기술 팀이 이번주 북한을 방문, 불능화 방안을 확정지은 뒤 불능화 작업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진척되는 다음달 중 라이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만일 라이스 장관이 방북, 김 위원장을 면담할 경우 이른바 핵폐기를 위한 북한의 결단을 촉구하는 한편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 등 북한이 원하는 안보조치에 대한 과감한 협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

라이스 장관이 중요한 합의를 하고 나면 부시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부시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 면담 가능성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연합뉴스

“미얀마의 저항은 끝나지 않았다”

반체제조직, 시민 불복종 운동 추진

미얀마의 반체제 지지조직이 군사정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민 불복종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7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민주화시위를 주도했던 미얀마 민주인사들과 승려들은 매일같이 '안전가옥(safe house)'을 오가며 군정에 대항하는 다음 단계의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1988년 학생봉기 당시 주역이었던 이들 활동가는 미얀마 군정의 최고실권자인 탄 슈웨 장군과 그 추종 세력을 축출할 가장 좋은 기회를 20년만에 맞고 있다고 믿고 있다.

지난달 '사프란(선홍색) 혁명'을 이끌었던 한 승려는 "군정에 대한 저항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가 군정에 더 큰 압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체제 인사들과 선이 닿아있는 한 소식통은 텔레그래프와의 통화에서 "88세대" 10여명이 양곤 안팎에 은신해 있다"며 "군정이나 민주화 세력은 지금이 전투 중의 소강상태라는 사실을 서로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체제 평화시위는 미얀마 사람들이 주요 사찰에 모여 촛불을 밝히고 함께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이미 시작했다.

양곤의 한 목격자는 "그들이 소규모로 사찰에 가기 때문에 군경이 제지할 수 없다"며 "이는 매우 현명한 전술"이라고 말했다.

민주화운동 활동가들은 미얀마 기독교인들과 이슬람교도들에게도 '기도 운동'에 동참할 것을



미얀마 시위대들이 7일 태국 방콕의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군사정권의 강경 무력진압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요구하고 있다.

'시민 불복종'이라는 야심찬 계획도 현실화되고 있다. 태국 방콕에 거주하는 한 망명인사는 "미얀마 활동가들이 시민들에게 체제에 협조하지 말고 공장이나 사무실에 결근하도록 요구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적게 먹고 산보하며 화 내지 말라!

마오쩌둥·덩샤오핑의 장수 비결 알고 보니...

마오쩌둥은 84세, 덩샤오핑은 90세, 천윈은 96세까지 살았다. 이들 이외에도 주더, 예젠잉 등 중국 혁명 1세대들은 담배를 그렇게 즐기며 피워대면서도 대부분이 장수를 누렸다.

중국의약대학 중국의학연구소 천천민 부교수는 이들의 장수비결을 수년간 연구한 끝에 하나의 원칙을 발견했다고 중국 반관영통신인 중국신문사가 7일 보도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발견한 장수비결은 간단했다. 적게 먹고 산보하며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74세 때 균중을 이끌고 수영으로 강을 건넌 만큼 건강했던 마오쩌둥이 평소 입버릇처럼 말하던 건강 비법에 다를 바 없다.

마오쩌둥의 건강 비결은 "기본적으로 채식하고 식후에 100보를 걸으며 일을 당해도 화를 내지 말고 노동과 휴식을 적당히 하라(基本吃素 飯後百步 遇事不怒 勞逸適度)"의 16자로 압축된다.

이 비결을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채식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변비를 예방하며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 심혈관 질병 발병률을 줄인다. 채식을 위주로 하되 육류·생선과의 비율을 8대 2로 하라고 중의학 의사 덩안중은 충고한다.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이미 상당 부분 의학적으로 검증이 됐지만 나이가 들면 산보와 수영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건강 비결 이외에 다른 비법이 하나 더 있었다. 정력이 충만하고 낙관주의자라는 사실이다.

그는 "나는 낙관주의자를 지향한다. 하늘이 무너져도 두렵지 않다. 키 큰 사람들이 먼저 부딪히기 때문이다.(덩샤오핑은 키가 매우 작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고 한다. /세이징=연합뉴스

후진타오 시대 본격 개막

黨·政·軍에 친정체제 구축...리커창·시진핑 후계 경쟁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공산당 제 17차 전국대표대회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15일 개막하는 당대회인 17전대에서는 후진타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5년 임기의 당총서기직에 연임되고, 차기 지도자의 윤곽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후 주석이 지난 2002년 공산당 제 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제4세대 지도자로 확정된 것은 덩샤오핑으로부터 장쩌민 전 주석을 이을 차기 후계자 지명을 받은지 10년만이었다. 후 주석은 집권 초기 최고지도자이기는 했으나 9명의 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중 수석위원이었을 뿐이고 달리 친정체제를 구축할 여유가 없었다.

17전대에서 향후 5년간의 집권을 위임받을 후 주석에게 예전과 달리 친정체제 강화를 위해 측근들이 포진하기 시작했다.

후 주석의 비서실장격인 당 중앙판공정주임에 최춘근 림지화(52) 판공

미국서 경찰관이 총기난사 6명 사망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비빈인 한 경찰관이 가정집에 침입해 총기를 난사, 6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7일 새벽 3시경(현지시간) 미국 북부 위스콘신주의 소도시 크랜던의 한 가정집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 7명이 사상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는 크랜던에 속한 포레스트 카운티의 부 보안관인 타이러 피터슨(20)으로, 주로

심대 후원에서 20대 초반 청소년들을 무차별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망자 중 3명은 고교생이고 나머지 3명도 고교를 졸업한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았으며 중상자 1명은 총을 맞아 인근 병원에서 이송됐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사건 당일 이들은 영화를 보면서 피자를 먹는 파티를 위해 모였다고 크랜던 경찰은 전했다.

이번 사건의 자세한 경위나 범행

미국서 경찰관이 총기난사 6명 사망

심대 후원에서 20대 초반 청소년들을 무차별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망자 중 3명은 고교생이고 나머지 3명도 고교를 졸업한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았으며 중상자 1명은 총을 맞아 인근 병원에서 이송됐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사건 당일 이들은 영화를 보면서 피자를 먹는 파티를 위해 모였다고 크랜던 경찰은 전했다.

이번 사건의 자세한 경위나 범행

/워싱턴=연합뉴스

전통 침·뜸 공개강좌

- 의료개방 및 의료법 개정 대비 침구인 양성과정
- 중국 추나침구사·피부마용사·인마사 자격취득

주요 체험전통침, 뜸, 부항, 경혈, 경락, 아침, 특종침, 피부관리, 과목 비만침법, 마용침법, 두실, 수지실, 약침, 침구관리, 한방초 등

광주분원 공개강좌 및 설명회

- 일 시 : 10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
- 위 치 : 광주시 동구 학동 649-45번지 3층 (호선 중앙사당구역 2기출구에서 직진 5-0L주유소 옆 건물)
- 관람비 : 배부(음) 오후 2시 ~ 6시 (총 16주환선)
- 할인비 : 88,000원 (교재포함)
- 참가자격 : 나이, 학력, 경력 제한 없음

☎ 1544-5359 / 236-3516

CH 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총가집설령탕

확장이전

고성판 설령에 만나드리며 총가집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또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해준 고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고시합니다.

☎ 062-374-0015